

광주FC, 대전 잡고 순위 도약 노린다

22일 광주월드컵서 20라운드 무승 고리 끊고 '상승세' 공·수 양면 뛰어난 활약 후반기 선두권 추격 시동



광주FC가 대전하나시 티즌을 상대로 2연승과 함께 순위 상승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대전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FC는 지난 18일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4경기 연속 무승의 고리를 끊었다. 이로써 승점 27점(7승 6무 6패)으로 반환점을 돌며 리그 6위에 올랐다.

제주와의 맞대결은 광주의 올 시즌 향방을 좌우할 매치업으로 봐도 무방했다. 광주와 제주는 경기 전 나란히 8위와 9위에 자리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분위기가 자칫하면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시점에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성사됐고 웃음을 지은 건 광주였다.



광주FC가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대전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광주FC 정지훈이 지난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전에서 득점한 뒤 세리머니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특히 긍정적인 대목은 공수 양면의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점이다. 최후방에선 노희동 골키퍼가 돋보였다. 제주는 이강현이 퇴장당한 직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나기 슈팅

을 퍼부었음에도 노희동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노희동은 여러 차례 좋은 선방을 보였고 광주의 득점 장면에선 정확한 킥으로 선제골을 견인했다. 공격진에선 정지훈이 번뜩였다. 프로 3

년 차를 맞이한 측면 공격수 정지훈은 빠른 스피드, 유려한 드리블로 제주 수비진을 괴롭혔다. 후반 1분엔 자신의 장점을 십분 살린 환상적인 돌파 후 깔끔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최근 정지훈은

이정호 감독의 남다른 신뢰 아래 광주의 주축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점차 출전 시간을 늘리며 풍부한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는 와중에 K리그 데뷔골까지 신고해 자신감마저 충전했다.

광주는 상위 스플릿에 해당하는 6위로 반환점을 돌았다. 다만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만족하지 않고 남은 19경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구단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다.

대전과의 경기는 광주의 경쟁력을 시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대전은 리그 19경기에서 9승 6무 4패(승점 33), 2위를 질주하고 있다. 강팀인 만큼 광주가 대전을 잡고 기세를 탄다면 선두권 추격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광주와 직접적으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3위 김천상무, 4위 울산HD, 5위 포항스틸러스는 전부 승점 29점을 기록하고 있다. 승점 27점에 광주가 대전을 꺾고 승점 3점을 챙긴다면 결과에 따라 3위 등극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광주는 홈에서 대전을 꺾고 흐름을 살려 후반기 선두권 도약에 박차를 가한단 계획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한국 남자하키, 네이션스컵 4강 진출 레알 마드리드, 클럽월드컵 첫 경기서 알힐랄과 1-1 무승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1-0 승리 뉴질랜드와 결승 티켓 다툼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국제하키연맹(FIH) 네이션스컵 4강에 올랐다.

민태석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FIH 네이션스컵 A조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1-0으로 제압했다.

한국은 이번 승리로 2승 1패를 기록,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며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20일 뉴질랜드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세계 랭킹은 한국이 14위, 뉴질랜드는 11위다.



이날 경기는 2쿼터 임도현(성남시청)이 페널티 코너에서 터뜨린 골이 결승골이 됐다. 한국은 이후 남아공의 파상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며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나라가 출전했으며, 우승팀은 2025-2026시즌 상위 리그인 FIH 프로리그 출전권을 얻게 된다.

최동환 기자

맨시티는 위다드 꺾고 산뜻 출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최다 우승팀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과 무승부를 거두며 아쉬움을 남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H조 1차전에서 알힐랄과 1-1로 비겼다.

클럽 월드컵은 물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36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15회)에서 모두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로선 아쉬움이 남는 무승부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발베르데, 호드리구 등 스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 전반 34분 호드리구의 크로스를 곤살로 가르시아가 마무리하며 앞서갔지만, 전반 41분 네베스의 페널티킥 골로 동점을 허용했다. 레알은 후반 막판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으나 발베르데의 슈트를 알힐랄 골키퍼 부누가 막아 무승부에 그쳤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뒤를 이어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첫 공식 경기에 나섰다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같은 날 G조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가 모로코 위다드를 2-0으로 꺾었다. 포든이 전반 2분 선제골을 터뜨리고, 이어 전반 42분 도쿠의 추가골을 도우며 1골 1도움으로 활약했다. 맨시티의 홀란은 후반 교체 투입됐으나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최동환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